

전남, 中企·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팔 걷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지방비 보조하고 컨설팅 등 지원 스마트 전통시장 시범사업 추진 상가에는 모바일 주문, 서빙로봇

전라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현장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제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지방비 30%를 추가 보조하고 있다. 2019년 129개 기업에 이어 지난해 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으며, 올해 195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신규 또는 고도화로 구분했던 지원체계를 각 공장의 구축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도입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하는 스마트 코디네이터

와 도입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 TF팀 등 운영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대면 기반 스마트 상가 도입도 본격화한다. 스마트 상가는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인회, 번영회 등 조직화된 상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러와 스마트 메뉴보드,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술은 물론 비대면 기반 모바일 예약·주문·결제시스템인 스마트오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지역 3개 상가 내 18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며, 내년 6개 상가 3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5개소에 비대면 서

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마트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대면 판매방식이 주를 이루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네슈퍼에 스마트 출입구, 무인자판기 등을 지원해 낮시간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50개소씩 전환해 오는 2025년까지 250개의 스마트슈퍼를 도입, 소상공인 노동시간 단축과 24시간 영업을 통한 추가매출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김천시 직원들이 캠페인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청년CEO 제품을 설 명절 선물로 구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김천시,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설 선물 온라인장터 열어 지원

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청년CEO 생산 물품 사전 주문 판매를 진행했다. 시는 매년 명절마다 김천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되던 판매장터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년부터 비대면 주문 판매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매 행사에서는 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기업 1개소, 협동조합 3개소, 청년CEO 6개소, 총 14개 기업이 참여해 직접 생산한 수제 디저트, 방역용품, 화장품, 꽃차,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 등 45여종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됐다.

김천시는 시청 직원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전력기술 등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제품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CEO 생산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 대비 1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수수료 0원’ 울산페이 배달 내달 출범

오늘부터 14일까지 명칭 공모 1등작에는 울산페이 30만원

이르면 내달부터 KT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공모전은 네이밍(명칭) 공모, 홍보영상 공모 2개로 나눠 진행한다. 8일~14일 신청을 받는 명칭 공모는 울산페이 배달서비스의 이름을 지어 참여하면 된다. 홍보영상은 2월 8일~3월 14일 사이에 울산페이 배달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 된다.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울산페이에 관심이 있는 누



모델들이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여는 공모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KT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공모전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네이밍 공모 1등작은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공식 이름으로 사용하고,

홍보영상은 서비스 홍보 용도로 활용한다. 네이밍 공모 1등은 울산페이 30만원, 2등은 20만원을 시상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프로, GS25 쿠폰을 제공한다. 홍보영상 1등

은 울산페이 200만원, 2등은 울산페이 50만원, 3등은 30만원을 수여하고, 추첨을 거쳐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참가선물로 지급한다.

KT와 울산시가 내달 초 선보일 예정인 울산페이 배달서비스는 울산페이 앱에서 배달 앱으로 연결돼 간편히 주문할 수 있다. 울산페이인 만큼 결제금액 수수료도 없으며, 이틀만 지나면 결제금액이 정산된다. 이 때문에 정식 출시 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울산페이는 KT의 착한페이 플랫폼에 기반한 지역화폐 서비스로, 현재까지 누적 32만 7000여명의 회원과 2만9600여곳의 QR결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KT는 울산시 울산페이와 부산시 동백전(현재 신규 사업자 모집중)을 포함해 7개 지방자치단체의 착한페이를 운영 중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부산시, 월륜교차로 일원 교통체계 개선

부산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개장에 따른 교통혼잡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개장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인근 월륜교차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관리 인력 집중배치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월륜교차로 및 좌

수영로 일원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연계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변 월륜교차로와 연계예식장교차로, 토곡교차로에 교통관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전북, 설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성료

5800만원 상당 물량 ‘조기 완판’

전라북도도와 전북농협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가 도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 완판됐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농축수산물 판매는 지난해 전라북도가 7차례 진행한 특판행사 역시 모두 완판되는 등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농민과 도민을 잇고 지역 특산물의 판로가 되는 상생과 소통의 장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청 주차장에서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협업체 진행한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에서 무주 사과, 전주 배, 한라봉, 김, 멀치, 치즈돈까스 등 8개 품목 2330세트 약 5800만원 상당이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특판현장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등 전북도 공무원과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열린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차량에 실어주고 있다.

이번 특판행사 기획전은 설 명절 선물세트 위주로 품목을 구성하고, 신속한 결제 방식 진행,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판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도민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치즈돈까스, 한라봉, 무주 사과 등이었으며 준비한 모든 품목이 순차적으로 조기 품절됐다. /전북=강성태 기자 ksd1008@

부산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 예산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다.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 타당성, 부적정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심사, 우선순위 시민 설문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3월 이후 접수 건은 검토 후 2023년 예산에 반영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전남 ‘농업인 월급제 사업’ 모집

전라남도는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로,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비·사과·마늘 등 일정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전라남도와 시군이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전남=양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